

변화와 희망 (한국 방문 소감)



신동국 재미한인수의사

인간, 사회, 그리고 국가의 생활환경, 생각과 유행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진보로 또는 퇴보로 변한다.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발전은 단순히 국민소득의 향상으로만 되지 않고 사회, 정치, 문화와 경제 등 전반적인 사고 의식의 동반 상승을 통해 서서히 이루어진다. 누구나 희망을 갖고 있을 때는 변화에 적응하며 자신의 성취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결국은 꿈을 이루게 된다.

본인이 다닌 대학의 미주 동문 수의사들은 한국의 모교 수의과대학 학장님이 매 2년 바뀔 때마다 초청하여 교제를 나누고 본국의 수의계와 학교의 소식을 듣는다. 후배 학생들을 여름방학에 2-3명씩 초청하여 선배의 집에서 묵으며 병원에서 연수를 하고, 인근의 Referral Hospital, 최신의 Lab을 구경시켜 준다. 선배들과 만남을 통해서 삶을 느끼고 배우며 미국의 문화와 세상이 넓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의 앞날에 대해 생각할 여지를 제공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다녀갔던 후배들이 한국에서 열심히 각자의 맡은 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선배로서 보람을 느낀다.

인간이나 국가 관계는 일방적인 도움보다는 서로 간에 오고갈 때 더 정감이 가며 서로간의 관계가 깊어지고 원만해진다. 일방적인 관계에서 주는 자는 교만해지기 쉽고 받는 자는 의지하기 쉬우며 자생력이 약해진다. 모교 수의과대학의 위상이 높아지고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동문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미주 동문들을 매년 2명씩 초빙교수 또는 모교방문으로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임상 경험담을 강의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고 한국 수의과대학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있다.

본인은 그동안 자녀들의 학교 관계로 방문을 미루다가 지난 10월에 부부가 한국을 나가게 되었다. 3년 전에는 한국에 나가서 개업 수의사와 대한수의사회를 들르면서 보고 느낀 바를 '도약하는 한국의 수의계' (2002년 9월호)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

초여름에 미국에 들렀던 모교의 최민철교수님의 권유로 나오는 길에 중부권의 여러 수의과대학에도 강의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일을 추진했다. 가는 길에 모교인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도 방문하기로 하니 일정이 빠듯했다.

마침 아내가 한국에서 출판되는 '문예사조'의 10월호에 시인으로 등단되어 3년 만에 가는 길에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서 어머니의 83세 생신 잔치 겸 처의 시인등단 기념파티를 10월 29일 토요일 원주에서

열기로 했다.

11일 간의 짧은 일정동안에 일곱 군데서 아홉 번의 강의, 강연과 부모님들을 상대로 한 자녀 교육 세미나 등을 통해서 본인이 주로 학교로만 다니면서 여러 교수님들과 선생님들로부터 듣고 느낀 것을 기술하고자 한다.

10월 23일 2005년 주일 아침 새벽 4시 3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휠체어를 타신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게 되니 LA.공항과 인천공항에서 기다란 줄을 서지 않고 빠르게 통과가 되었다.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노부모님 덕분에 누리는 혜택인 것 같다. 공항에서는 휠체어를 타신 분들에게 대한 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

새벽에 어머니와 우리 부부를 데리러 온 서울의 동기 이성환원장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영종대교를 지나서 아직 동트기 전, 인천 서해 바다의 새벽 어두움을 가르며 서울 시내로 향했다.

L원장은 “요사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매일 일인 시위로 수의계가 바쁘게 지냅니다.”한다. “무슨 말이냐?”고 하니, 수의 관련법에 어류질병 치료에 관한 치료자로서 어느 나라에도 없는 한국 유일의 어의사(어류질병치료사)와 수의사가 있는데 법조문에서 수의사란 단어를 삭제하기로 어느 국회의원이 법을 상정해서 그에 맞서 시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어의사란? 미국에 살면서 본국의 소식에 어두운 동문들은 잘 이해가 안 가지겠지만 그런 제도가 있다. 다른 나라들에서 모든 동물은 수의사만이 치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일반 상식보다는 아직도 목소리 크고 힘 있는 자가 우세한 것이다. 돈이 안 되고 큰 희망이 없으니 그 분야에 가서 일하지 않는 수의사의 책임도 있다.

우리를 데리고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는 여의도에 사는 기독교방송국의 K작가 집으로 갔다. 파킹장을 보니 차가 짝 차 있고 더블 파킹이 다 되어 있다. 3년 전에는 못 보든 모습 이였다. 아파트는 많이 짓고 여유가 있어서 차를 더 구입하게 되니 파킹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더블파킹을 한 차들은 기어를 중립에 놓고 가면 앞 차의 주인은 나갈 때 뒤차를 이리저리 미니 공간이 생긴다. 삶의 지혜라고나 할까.

주일 예배를 그 분 교회에서 드리고 호암회관으로 갔다. 한국수의임상학회로 매우 바쁜 와중에 최민철 교수님과 동물병원장인 윤정희교수님이 반갑게 맞이해 준다.

저녁에는 바쁘신 모교 양일석학장님이 시간을 내 주셔서 식사를 하며 대학과 한국수의계의 실정에 대해서 들었다.

모교의 초청으로 가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강의할까 지난 1-2년간 생각하면서 써온 글들이 있다. 학문적인 것은 졸업한지 25년이 지나서 한국의 교수님들과 학생들 수준이 나보다 훨씬 나운데 무엇을 할까 하다가 “Balanced Life of a Veterinarian”(삶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임상수의사로서 20년간 개업하면

서 느낀 것과 미국 수의계의 변화와 적응에 대해서 강의하기로 했다.

인생 오십년을 살면서 느낀 것과 임상수의사로서 살아가면서 개업과 임상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삶의 가치관과 목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결혼하고 나서의 부부관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교육, 생활 속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고 인생을 즐길 것인가, 개업하면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 비즈니스의 운영, 나이가 들면서 사회의 리더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먹고 살만한 여유가 있을 때 내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닌 학교와 사회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근 67페이지의 분량의 글을 썼다.

글을 보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최민철 교수님이나 동물병원장이신 윤정희 교수님을 통해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초등학교에 가서는 학생들에게 권면의 말과 부모님들에게 자녀교육 세미나를 하였다. 본인은 자녀를 키우고 교회에서 교육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교육에 관한 많은 책을 읽고 나의 자녀를 가르치고 교회의 부모님들에게 세미나를 해오고 있다. 제 3국에 선교 가면 나름대로 연구한 것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곤 했다. 책도 편집해서 만들기도 하였다. 고등학교에서는 '꿈과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여러 수의과대학에서 교수님들과 대담하고, 학생들에게 강의와 질문을 통해서 느낀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수의과대학이 어느 대학교이든 학생들 수준이 상위권에 들어 있다. 의대, 치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이다. 우수한 학생들이 커다란 꿈과 희망을 갖고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보니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실망한다고 했다. 아직 한국은 수의사의 사회적, 법적 대우가 진행 중이다.

지난 2-3년간 불경기로 임상수의사의 수입이 전과 같지 않고 졸업생이 일 년에 500명 이상이 배출되고 있고 과거와 달리 임상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비해 시장이 제한되어 있음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게 된다. 몇 년 후면 공급과잉을 초래할 것이다. 미국은 미국수의사협회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서 대학과 수의사의 수를 조절한다. 어느 교수는 미국의 경제력과 비교할 때 300명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했다.

현재 미국의 인구는 3억이며 국민소득은 3만 불이 조금 넘고 개, 고양이의 수는 1억 4천만 정도이고 수의사는 9만이며 대부분이 소동물 임상수의사이다. 한국은 인구가 4천 8백만이고 국민소득은 1만 6천불이며 애완동물은 서울이 400백만(?) 정도라 하며 서울의 임상수의사는 천 명이 넘는다고 한다.

현재는 학생들이 공무원을 선호하다고 하는데 사회의 전반인 현상이다.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 대학을 다니거나 나온 사람들이 학원에서 많이 공부하고 있다.

둘째는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은 입학 시는 서울의 학생들과 별 차이가 없는 머리 좋은 학생들이 들어온다. 강원대는 90%가, 충청권은 60% 이상이 서울 출신이다. 진취적이고 높은 이상과 꿈을 갖고 들어온

학생들이 6년이 지나서 졸업할 때는 꿈이 적고 현실에 안주하고 왜소해지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했다.

현재의 학생들은 우리 세대와 달리 고생 없이 풍요로움 속에서 자란 세대라서 Easy-going 하기를 원한다. 강의 중에 삶을 쉽게 살려고 하지 말고 힘이 들더라고 목표와 성취욕을 갖고 살라고 했더니 교수님들이 “원장님 잘 하셨습니다.” 한다. 인간은 꿈을 상실할 때 현실과 쉽게 타협하고 안주하며 좁은 마음을 갖기 쉽다.

어느 학생들은 본과 2학년 때부터 한국의 수의사국가고시 시험 준비를 한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 우리 때는 시험보기 며칠 전에 공부하여 합격했기 때문이다. 그 시간에 영어나 제 2외국어를 공부해서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보라고 했다.

현실적으로 지방대학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서울대학(서울대학교가 아니고 서울에 소재해 있는 대학)을 나온 학생들에 비해 취직하기가 힘들다.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다 보니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시야가 좁아지는 경향이 있고 세상의 흐름에 덜 민감할 수도 있다. 기업에서도 서울대학 출신을 선호한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서울대학과 서울 인근의 대학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셋째는 모교의 수의과대학 건물과 시설이 매우 잘 되어 있어서 미국의 수준과 비슷하다. 젊은 교수님들이 각 대학마다 많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미국 수의사면허 시험에 합격하는 자가 나오고 있다.

얼마 전에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80년대만 해도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학교로 초청하기 보다는 외부에서 만나기를 원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와봐야 보여줄 것이 없었기 때문 이었다. 이제는 자신감이 있다고 했다. 동물병원의 수입도 좋아지고 있어서 재투자를 위해 쓰여 지고 있으며 새로운 기계들이 들어오고 있다. 시일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AVMA(미국수의사협회)에서 인정하는 대학이 될 것이다. AVMA에서 인정된 대학은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에 오직 한 개의 대학이 있다.

넷째로 본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에서 배출되고 있는 수의사들의 2-3%만이라도 미국으로 진출하라고 말하고 글을 썼다. 이번에 강의 시 미국 수의사 취득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의할 때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느꼈다.

현재 미국은 수의사면허 취득과정을 점점 어렵게 만들고 문호를 좁히려고 하고 있다. 수 천 명의 외국인 수의사들이 경쟁하고 있다. 아직도 미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수의사의 임상분야에서는 사회적 대우와 경제적 수입이 우수하다. 이제는 세계화의 사회 속에서 경쟁력이 우수한 자와 나라가 살아 남는다.

미국 인구는 3억이고 미국에 사는 한국인의 인구는 0.8%인 250만 정도 된다. 미국의 수의사는 9만이고 한국계 수의사는 150여명 된다. 유태인은 미국 인구의 2.5% 밖에 안 되면서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학계를 주도하고 있다. 본인 생각으로는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수의사 9만의 0.8%인 720명은 우리 한

국계의 뚝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많은 종족이 모여살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뚝도 못 찾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는 학생들이 영어를 매우 잘 한다. 90년대 학번보다 2000년대 학번이 더 낫다. 외국어 고등학교 출신자와 외국서 살다가 온 학생들이 많고 어려서부터 영어를 배워서 능숙하다. 미국인 교수의 강의를 잘 듣고 질문도 잘 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 경쟁력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바라기는 학생들이 미국에 오고자 한다면 수의과대학에 들어와서 본과 3-4학년 전에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영어 시험을 통과하고, 3-4학년 때 NAVLE 시험책자를 구입해서 공부하면 졸업과 동시에 꺾어 가서 시험을 보고, 미국 동문들의 병원에서 6개월 내지 일 년 간 경험을 쌓으면서 미국 문화도 알고 대학을 신청해서 일 년 간 인턴을 마치고, 미국 면허를 취득한다면 시간도 절약하고 젊은 시절의 꿈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본인은 수의사가 되기 위해 이민을 왔기에 군을 제대하고 왔어도 만 28세에 CA. 면허를 취득했다. 일찍 삶의 가치관과 목표를 가진 자들이 성공률이 높다.

여섯째는 대학마다 임상 동물을 위한 봉사동아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동물임상이 서서히 줄고 있다. 과거 70, 80년대에는 대동물 임상 클럽이 주였다. 그러다가 근래에 없어졌다. 새로이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생각해야 될 것이다.

소동물임상이 대부분이므로 그 분야의 동아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어느 대학처럼 미국의 Animal Shelter와 비슷한 곳에 가서 봉사하든지, 방치된 애완동물을 모아서 돌보든지, 가난한 동네의 어린아이들도 애완동물을 가질 수 있도록 돕든지, 이제는 한국의 경제가 수출입이 5천억이 넘는 세계 12위이므로 그에 걸맞게 제 3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을 위해서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봉사할 수도 있다.

한국에도 기독교인 수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대한기독교 수의사협회가 얼마 전에 발족되었다.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가난한 제 3세계에 나가서 봉사할 때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은 대학 시에 임상클럽인 Pallas에서 이년 반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은 수원시 영통동이 된 곳에서 대, 소동물 상대로 봉사를 하였다. 그것이 나의 임상과 인생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일곱째는 졸업 후에 임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시절부터 인근의 동물 병원에 가서 허드렛일부터 배워야 한다. 졸업하고 나서 임상을 하겠다고 하기보다는 일찍 마음에 결정이 되었으면 학교의 동아리, 선배의 병원과 큰 농장 등에 가서 배워야 한다. 임상의 진료만이 아니고 비즈니스 운영, 대인관계 등 진료 외에 수반되는 많은 것을 공부하고 배워야 한다.

여덟째는 미국의 대학원생들의 많은 수가 외국인으로 채워져 있듯이



한국도 경제의 발전으로 수의과대학의 인기 있는 대학원 과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베트남 등 제 3세계에서 온 학생들로 채워지거나 대학원생이 없으면 테크니션으로 대치하기도 한다. 대학원생에게 등록금을 주고 생활비의 얼마를 제공해도 잘 오지 않는다고 했다. 풀타임으로 하지 않고 파트타임으로 하는 사람이 많다. 대학원을 안 나와도 생계에 영향이 크지 않으니 큰 인기가 없다.

한국의 3D 직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40만이 넘는다. 대학 정원이 고등학생 수보다 많아지는 현실에서 지방대학의 자립을 위한 활로가 심각해지고 있고 서서히 대학 간의 통폐합이 시도되고 있다. 경쟁력이 없으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다.

다음은 본인이 초,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을 면담하면서 듣고 느낀 것이다.

첫째는 농촌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은 수가 편모, 편부, 조부모, 친척의 손에 의해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혼이 많아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부모들이 대도시로 가다보니 그렇게 된다고 한다. 이제는 선생님들이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아이들을 돌보아야 된다고 한다. 가르치다가 아이들이 지루함을 느끼면 운동장으로 나가서 데리고 놀다가 와야 한다. 선생님들의 역할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둘째는 고등학교의 이야기다. 너무 말썽 많은 학생을 선생님이 매를 한 대 댔는데 얼마 뒤 배우신 할아버지가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손자는 4대 독자이고 우리도 먹을 만큼 재산이 있는데...” 하시더라. 지금 한국에서는 선생님들이 매를 대지 못한다. 한 가정에서 아이를 하나, 둘 만 나서 공주, 왕자처럼 키워서 왔기에 학교에서도 그렇게 대우 받기를 원하니 선생님들이 30여 명의 귀공자들을 대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다.

셋째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점심에 급식을 제공한다. 도시락이 없어진 것이다. 밤 11시까지 수업을 시키는 학교는 저녁도 제공한다. 식대비는 내지만 가격에 비해 맛있고 좋은 영양식이 제공된다. 그래도 워낙 학생들이 많고 입맛이 다르니 불평하는 아이와 부모들이 있다고 한다. 불평하는 부모님들에게 학교에 와서 봉사해보면 놀란다고 했다. 저렴한 가격에 훌륭한 음식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대학 구내식당에서 4,000원 짜리 점심을 먹었는데 맛이 좋았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경제가 힘들다 해도 예전보다 나아졌으며 음식의 질이 좋아지고 청결해졌다.

넷째는 본인이 4월에 파라과이 단기선교를 갔다가 수도 아순시온에서 세 번째로 좋은 가나안 초,중,고등학교의 도서관을 방문했는데 도서관이 너무 빈약한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미국을 돌아와서 본인이 36년 전에 졸업했던 초등학교가 생각이 나서 학교로 편지를 보냈다. 도서관이 있다면 도서비를 조금 보내드리겠다고 했다.

마침 강원도의 도서관 설립 지정학교로 되어서 건축 중이라고 하였다. 기쁜 마음에 소정의 금액을 보냈

다. 그런데 한국 가서 들렀다가 과분한 대접을 받고 곰곰이 생각을 했다. 기부문화가 발달된 미국에서는 그 정도면 별 것 아닌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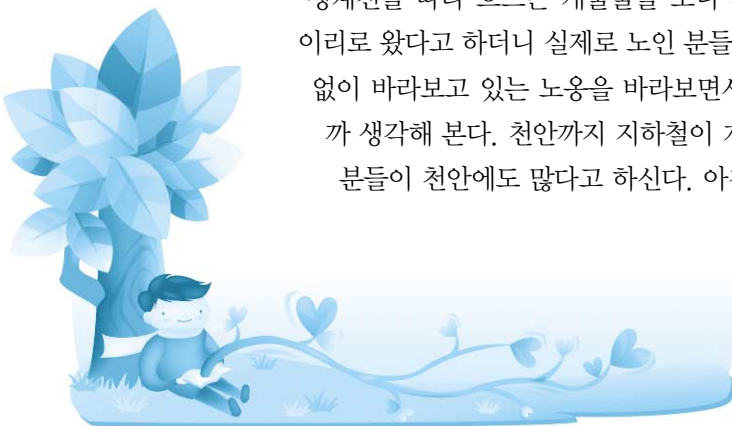
세계 제 1, 2의 부자인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은 몇 백 억 불의 재산을 갖고 있다. 많은 돈을 사회와 제 3 세계에 기부하고 있는 존경받는 부자들이다. 부자지만 자손들에게는 먹고 살만큼 조금만 주고 거의 대부분은 죽을 때 까지 사회에 환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에는 거부들이 사회에 환원한 대학과 재단이 많이 있다.

한국에 나가기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노후가 불안하다보니 있어도 움켜쥐고 있어야 되고 남에게 마음과 적은 물질이라도 도와준다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노인은 죽은 뒤 지하실에 가보니 사과상자가 가득한데 열어보니 현금 이였고, 그의 아들은 카지에 가서 단 시일 안에 탕진했다고 한다. 말씀하시는 분이 그 재산의 백분의 일이라도 사회에 기부했다면 이름이라도 남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각 수의과대학에서 강의 시 학생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서 모교를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다섯째는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옛날보다 좋은 환경 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약간은 유약한 듯한 느낌이 든다. 부모의 온실 속에서 자라다보니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 유태인처럼 남을 도와주라고 가르쳐서 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이겨야 내가 산다고 가르치니 삶이 힘들고 서로 지게 되는 것이다.

어느 하루 오후에 시간이 있어서 정순욱교수님에게 복원된 청계천을 구경 가자고 했다. 가는 길에 택시를 탔는데 72세 된 할아버지 기사이다. 신이 나서 말씀하시면서 그 나이에 직업이 있고, 건강하며 부인이 좋아하시고, 자식과 손주 들에게 용돈을 주니 좋아하고, 예쁜 아가씨들이 옆에 앉아주니 얼마나 좋냐고 하면서 75세까지 하시겠다고 한다.



청계천을 따라 흐르는 개울물을 보니 시원하다. 파고다 공원의 노인 분들이 이리로 왔다고 하더니 실제로 노인 분들이 많이 계셨다. 망연자실 물속을 하염 없이 바라보고 있는 노옹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나이가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생각해 본다. 천안까지 지하철이 개통되고 나서 무료승차권이 있는 노인 분들이 천안에도 많다고 하신다. 아침에 가서 놀다가 저녁 때 오니 건강에도 좋다.

새삼스럽게 인터넷의 파워에 놀랐다. 인터넷을 통해서 몇 십 년 만에 동창, 선후배를 만날 수 있었고, 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보고 싶어서 왔다. 만나서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얼마나 서로 좋아하는지 이해하기 힘들 정도지만 처는 연예인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하겠다고 했다. 처의 시를 통해서 자신의 한과 감정을 읽어주고 느끼게 하니 많은 감동을 받고 만나고 싶어서 멀리서도 온 것에 감사했다.

뜻 깊은 것은 어머니가 83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셔서 이런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것과 그 자리에 본인이 오늘 날의 의사로서 있기까지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셨던 네 분의 은사님들을 모실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만중초등학교 6학년 때의 담임이셨던 전 영준 선생님, 원주고등학교 때의 담임이시고 국어를 가르쳐주시던 김 봉수 선생님, 수학을 가르치시며 특수반을 지도하셨던 주 수복 선생님,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생 시절 봉사 활동을 지도하시면서 인생을 가르쳐주셨던 한 홍률 선생님들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것에 감사했다. 하객들에게 그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25년 만에 대학 동기회에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재미있는 것은 세월이 흘러도 옛날의 하던 행동거지와 말을 그대로 한다는 것에 새삼 놀랍고 재미있다. 본인은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책을 읽고 가르치면서 이해는 하지만 다섯 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말을 실감하면서 어린 자녀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느낀다. 학창 시절 능동적이고 사교적이며 대인 관계가 원만한 적극적인 친구들은 이 태백, 삼팔선, 사오정과 오륙도가 유행되고 오십이 넘어서도 직장을 갖고 있다면 가문의 영광이라는 말이 회자 되는 세상에 아직도 건재한 것을 보지만, 비사교적이고 외톨이로 놀며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친구들은 가정이 깨지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픔을 느낀다.

대학생들에게 이런 예를 들면서 강의를 하니 웃기도 하고 진지하게 듣기도 한다. 인생의 성공은 A+ 학점과 정비례 하지 않고 원만한 대인관계로 70%의 성공을 가져온다고 했다.

자녀교육을 위해 희생하는 기러기 친구들을 만나면서, 현실적인 문제이기에 자녀들 때문에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가장들을 생각하며 인생의 삶을 생각해 본다.

본인은 23년간의 이민의 삶을 살면서 한국에 몇 번 갔다 왔다. 매년 여름에만 나가다가 이번에 23년 만에 한국의 가을 단풍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운치 있고 노랗게 물들어가는 은행나무, 플라타나스나무, 붉게 물드는 단풍나무의 어우러짐을 지방대학들과 별들의 고향에서 조용하고 한가로운 아침에 여유로움 가운데 옛날 대학 시절의 그 맛을 만끽하며 감상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렸다.

강의를 끝내고 시인이 운영하는 시골의 조그만 식당으로 갔다. 앞뜰에는 코스모스가 만발해 있고 부추가 자라며 집에서 키운 채소상을 내놓는 추어탕 집에서 벽마다 붙어있는 주인장이 쓴 시조를 감상하면서 점심을 동기, 선후배 교수님들과 인생을 논하며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몇 년마다 한국에 가면서 느끼는 것은 변화와 격동의 세월 속에서 사회가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난한 제 3국들을 선교여행을 하며 느낀 감정을

생각하니 외국에서 사는 이민자로서 뿌듯함을 느낀다. 모국이 잘 되어야 밖에서도 대접을 받는 것이다.

교육에 관심이 많은 본인으로서는 교육 개혁 때마다 미국의 교육시스템에 근접해 가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이 정부의 지나친 간섭 없이 자유로운 경쟁에 있을 때 진취적이고 합리적이며 유능한 리더가 많이 나오고 국가와 세계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말로만 듣던 러브호텔에서 보냈다. 종업원의 의심스러운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시설이 좋고 잘 되어 있음에 놀랐다. 사랑하는 아내와 즐거운 밤을 보냈고 한국에서의 짧은 기간 동안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몸과 정신이 힘들었지만 즐거웠다. 강의와 강연이 주업이 아닌 본인의 미흡했던 점들을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성의껏 받아들이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번 한국행은 우리 부부에게 보람 있고 재미있었으며 의미 있는 뜻 깊은 영원히 추억에 남을 여행이었다.

지천명의 나이가 되어서 남에게 마음과 물질을 조금이라도 베풀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내가 남에게 조금 베풀었는데도 몇 갑절 이상으로 보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정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부부를 위해 운전으로, 풍성한 식사대접으로, 강의 시간 준비로, 관광 안내로, 환대와 담화로, 감사패들과 많은 선물을 주시며 진심과 성심으로 대접하여 주신 초, 중, 고, 대학 동기들, 선후배님들, 형제들과 친척들, 교장선생님들과 여러 선생님들, 각 수의과대학의 동기, 선후배 교수님들, 부족한 강의를 듣느라고 수고한 학생들과 부모님들, 사모님들, 학장님들, 총장님, 처의 인터넷 카페의 친구들과 문예사조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태어난 조국, 각 수의과 대학들과 수의사들 가정, 사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늘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